

우리금융, 광주은행 매각 일정 두달 연기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연기를 거듭하면서 우리금융그룹도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분할을 2개월 연기하기로 하는 등 매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광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기일을 애초 예정했던 3월 1일부터 2개월 늦어진 5월 1일로 연기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절차가 2개월가량 늦춰지는 셈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조특법 처리 지연 따라

연내 마무리 무산될 수도

우리금융 민영화도 차질

에서 '지방은행 분할 때 거액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을 광주·경남은행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정했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이 이들 지방은행을 매각할 때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6일 오전 11시 열린 예정이었던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2월 임시국회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분할 기일 연기'라는 교육책을 선택했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분할을 아예 철회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조특법 처리 상황을 보아가며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기일을 연기하자는 데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지게 됐다. JB금융과 BS금융이 각각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내 실사를 진행중이지만,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지방은행의 매각 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자칫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내 광주·경남은행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역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에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분할되더라도 매각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4개월여가 걸린다"며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 올해 매각작업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해 12월 연기된 조특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안철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체위 회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지난 14일 이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광주시 벤처기업육성 75억원 지원

시설·운전자금 5억까지

광주시는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자금 75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벤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대출금리를 제시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여금리 3.75~4.21%로 운용하며, 시에서 이차보전 2.65%를 지원해 기업체의 실질적 부담은 1.1~1.56%다.

지원 업종은 벤처기업과 창업 5년 이내 광(光) 관련기업으로 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일시 상환이다.

용자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26일부터 용자지원 신청서와 기술평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갖춰 기술보증기금에 방문해 접수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업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지정은행에서 용자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금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시책 합동설명회,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중소기업 지원매뉴얼 책자 제작배부 등 기업체에 유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

26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 수퍼마켓 협동조합, 상인연합회, 광주은행 등 9개 전담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2~2.2%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광주시 제공>

26일 서울 코엑스 ▲4월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월16일 대구 엑스코 등이다. 참가 협력사들은 현대·기아차 전차종의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이다. 생산직을 비롯, 고졸·대졸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2만명 이상의 청년·경력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행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획과 운영, 홍보 등을 총괄 지원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작년 13개 그룹 채용규모 6.8% 줄어

취업 선호도가 높고 채용 인력이 많은 13개 주요 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지난해 다소 줄었다.

26일 대기업 전문 취업포털 예디스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들 13개 그룹의 채용 규모는 2012년 3만6110명에서 2013년 3만3650명으로 6.8% 감소했다. 2011년 3만3777명에서 6.9% 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집계 대상에 포함된 주요 그룹은 예디스가 매출, 연간 채용 규모, 구직자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3 곳이다.

지난해 채용규모를 축소한 그룹은 두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KT그룹, 이랜드그룹, 동부그룹, LG그룹 등이

다. 이랜드그룹은 2012년 1000명에서 2013년 450명으로 반 토막이 났으며, 두산그룹도 2012년 1360명에서 2013년 900명으로 33.8% 줄었다. 이어 동부그룹 22.2%(900명→700명), LG그룹 18.8%(8000명→6500명), 현대자동차그룹 9.1%(5500명→5000명), KT그룹 8.7%(2300명→2100명) 순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전년보다 채용을 늘린 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650명→900명), SK그룹(2100명→2500명), 효성그룹(700명→800명), 롯데그룹(2200명→2400명) 등이다. 삼성그룹(9000명), CJ그룹(1600명), GS그룹(800명)은 채용 규모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연필뉴스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4월9일 DJ센터

청년 채용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가 4월9일 광주에서 열린다.

현대·기아차는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다 음달부터 전국 주요 지역에서 '2014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박람회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400여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 일정은 ▲3월 25~

26일 서울 코엑스 ▲4월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월16일 대구 엑스코 등이다.

참가 협력사들은 현대·기아차 전차종의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이다. 생산직을 비롯, 고졸·대졸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2만명 이상의 청년·경력 구직자가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행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획과 운영, 홍보 등을 총괄 지원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2회 박람회 때는 330여개 1차 협력사가 1만7215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냈다. 구직자는 참가 및 현장 예비 면접 사전등록을 홈페이지(hkpartner.career.co.kr)에서 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박람회와는 별도로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국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취업 전문가들이 방문해 상담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도 영남권(3월 12~25일), 충청권(3월 26일~4월 1일), 호남권(4월 2~8일), 영남권(4월 9~15일) 순으로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70.77 (+5.91)	▲ 코스닥지수 529.23 (+0.62)	▲ 금리 (국고채 3년) 2.86% (0.00)	▼ 원·달러 환율 1065.40원 (-7.50)
----------------------------	---------------------------	-------------------------------	-------------------------------

금호타이어 美NBA 공식후원

세계 타이어 업체 최초 2016년까지 3년 계약

금호타이어가 미국 프로농구 NBA의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세계 타이어 업체 가운데 NBA 공식 후원사로 나선 곳은 금호타이어가 최초다.

금호타이어는 26일 NBA 및 NBA 하부리그인 D리그와 2016년까지 3개 시즌 동안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NBA와 D리그의 정규시즌, 플레이오프 등에서 농구장 코트, 전광판, 점수판, 골대 지지대 등에 로고를 노출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미국 방송사를 통한 TV 광고도 함께 진행해 브랜드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미 지난 14~16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NBA 올스타전에서 로고를 노출했다. 특히 D리그 올스타전에서는 선수들의 유니폼에 로고를 부착해 공식 후원사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미국 4대 인기 스포츠로 꼽히는 NBA는 경기당 평균 관중이 2만명에 달하며 경기 실황은 ESPN, ABC, TNT 등 미국의 주요 방송사를 통해 215개 국가에 47개 언어로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되고 있다.

최혜영 북미영업담당 상무는 "세계 최대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인 미국에서 NBA 후원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더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저가 출혈경쟁 자제 효율경영이 살 길”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성황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송성홍)가 지난 25일 광주 라페스타 웨딩홀에서 심상조 중앙회 부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송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 그리고 공공공사의 발주 물량 감소로 인해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실적축약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것은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와 건설 노동제공자 제도 도입,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의 상향조정 등이 조속히 제도화 돼야 한다”며 “회원사 스스로가 저가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

CHAN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채널A www.ichannel.a.com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